

광주시, 위드 코로나 전환 '매력 광주 관광' 시대 연다

여행객 대상 생태·예술·야간관광 프로그램 운영·인프라 확충 '안전여행지 광주' 이미지 다매체 활용 입소문 마케팅 강화

광주시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춰 '매력적인 광주 관광' 시대를 연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온라인(Only-One) 전략을 마련하고, 광주만의 고유한 관광 자원을 엮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매력적인 관광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시는 올 상반기부터 15개 협력여행사와 함께 '인더파크 투어'에 21개 예술여행대표도시 관광상품 판매를 개시했으며,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춰 국내여행객을 대상으로 생태관광, 예술관광, 체류형 야간관광 상품을 추가로 내놓을 계획이다. 시는 인적·물적 관광 인프라도 대폭 확충한다.

내년에는 남구 양과동에 광주시립수목원을 개장

해 코로나19로 지친 관광객의 심신 치유를 도울 예정이다. 호수생태원 생태마을과 증심사 일대를 중심으로 무등산권 관광지도 조성한다. 또 어등산 인근에 위치한 월봉사원에는 2023년까지 선비문화 체험복합관을 건립하고, 체험형 관광과 국내외 유교문화권 교류를 통한 관광자원화에 나선다.

광주시는 '대한민국 예술여행 대표도시=광주'라는 인식을 굳히기 위한 아시아예술관광중심도시 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예술여행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으로 키워낸 전문 기획인력을 중심으로 동구 거점예술여행센터 및 북구 맛있는 예술여행센터 프로그램 등과 연계해 광주만의 예술 저력과 관광을 결합한 예술관광

상품을 마련 중이다. 예술관광 창업 공모전을 통해 선발된 예술관광 특화기업들은 양림동 역사문화마을·동명동 일원 대표 문화마을 등 도심 예술관광 인프라와 중외공원 비엔날레권역 아시아 예술정원을 잇는 예술관광 활성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한다.

광주 관광의 약점으로 꼽혀온 야간 관광 콘텐츠 구축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위상 확립을 위해 추진 중인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벨트사업과 아시아 콘텐츠 '인터랙티브 월' 조성, 옛 도청 광장 빛의 분수 사업 등 야간 관광 기반 확충에 집중하고 있다.

최근엔 남도 달빛 예술여행지 육성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 남북관광개발 기본구상 용역에 반영되면서, 지산유원지 인근(빛) 테마길 조성 등 광주 야간관광 인프라가 대폭 확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광주시는 이와 함께 광주의 안전한 관광지 이미지를 기반으로, 최근 영향력이 높아진 사회관계망(SNS), 웹툰, 유튜브 등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한 관광홍보와 빠르게 변화하는 관광객 행태 변화에 맞는 입소문 마케팅 등도 강화하고 있다.

시는 앞서 지난 9월부터 카카오톡 기반 '광주관광 챗봇시스템'을 개통하고 대화형 관광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9월 한달 동안 3541회 이용 실적을 기록하기도 했다. 광주시는 이 밖에도 위드 코로나 시대 증강·현실 미디어아트 페스티벌 등 광주대표 축제를 체류형 야간관광 상품과 결합해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는 의지다.

김준영 광주시 문화관광체육실장은 "단계적으로 일상회복이 시작됨에 따라 새로운 관광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한 관광회복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이순신 리더십 체험 일상회복 전남도, '리더십 캠프' 재개

전남도가 코로나19로 잠시 중단했던 '명량! 이순신 리더십 캠프'를 이달부터 본격 운영한다. '명량! 이순신 리더십 캠프'는 문화재청의 지역문화 유산교육 사업의 하나로 이순신을 주제로 한 역사 교육 프로그램이다. 명량대첩의 승리와 리더십, 전남도민의 호국·희생정신을 선양하는 현장 체험학습이다.

전남지역 문화유산과 이순신 유적지 등을 활용해 리더십 특강, 유적지 답사, 활쏘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전남의 대표적 역사교육 프로그램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운영을 중단했으나,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에 맞춰 교육 본래 취지에 맞는 현장 체험학습과, 현장교육 참여가 어려운 기관을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나눈 운영한다.

앞으로 초·중·고 청소년 및 군인 등 다양한 사회 계층에게 '명량! 이순신 리더십 캠프' 참여를 통해 역사적 의의와 교훈을 생동감 있게 전할 계획이다.

유미자 전남도 관광과장은 "코로나19로 사회 전반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역문화유산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모든 국민이 '청정전남'에서 힐링을 즐기면서, 문화유산 교육을 통해 함께 새로운 일상으로 나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경영 안정화·지역경제 활성화" 이용섭 시장, 중소기업 간담회

이용섭 광주시장은 10일 광주테크노파크 대회의실에서 지역 유망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기업경영 안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인들은 이날 ▲해외 진출에 따른 전문가 지원, 실질적인 바이어 매칭, 온·오프라인 지원 및 지원금 확대 ▲정년 인력채용을 위한 거주시설 확대 ▲신규 사업 건설 및 전주기 지원 ▲국가 연구장비 활용 시비 지원 ▲명품강소기업 사업 지원기간 및 지원금 확대 ▲전문인력 양성 및 산학연 연계 지원 등을 건의했다.

이 시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도 광주경제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것은 기업인들의 지속적인 기술혁신 노력과 활동 덕분"이라며 "기업과 지속적으로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애로사항 등도 적극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손도장 퍼포먼스 김영록 전남지사가 10일 영광 예술의 전당 대공연장에서 열린 제26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참석자들과 농업인에게 희망을 주는 손도장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공공배달앱 출시' 등 8건 광주시,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광주시는 지난 9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적극행정위원회'를 열어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적극행정위원회는 적극행정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및 상·하반기 우수공무원 선발, 적극행정에 대한 의견 제시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심사에서는 예산을 통과한 광주시 사례 10건, 공사공단 사례 6건 가운데 광주시 우수사례 5건, 공사공단 우수사례 3건을 각각 최종 선정했다.

광주시에서는 '민생플랫폼 광주공공배달앱 출시', 공사공단에서는 '전국 지하철 최초 무임대상 신분증 없어도 지하철 타러 갑니다'가 각각 최우수상을 받았다. 선정된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승급, 실적가산점 등 인사상 인센티브가 부여되며, 공사공단 직원에게는 기관에서 정한 포상 및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김종호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장은 "적극 행정을 위해 노력한 공무원과 공사공단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시민이 행복한 광주 조성을 위한 적극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위원회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중외공원 내 주민숙원 송전철탑 철거한다

2023년 3월까지 10기 완료 방침

광주시는 "시민 숙원인 중외공원 내 송전철탑 철거를 위한 송전선로 지중화 공사를 내년 말까지 완료하고, 송전철탑 철거도 2023년 3월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중외공원 내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은 중외공원 인근 시민들이 꾸준히 제기해온 것으로, 중외공원 일대를 지나는 송전선로 철탑 13기 중 주민주거 생활에 밀접한 10기를 철거하고 양일로 2.3km 구간 지하로 이설할 예정이다.

총 공사비는 214억원이며, 민간공원 추진 사업자가 120억원을 부담해 1.6km를 시행하고, 광주시

와 한전이 각각 47억원을 투자해 0.7km 구간을 지중화한다. 광주시는 민간공원 조성사업으로 지난 8월부터 민간사업자 구간 1.6km를 공사하고 있으며, 한전 시행 구간인 0.7km는 내년 3월 착공한다.

당초 민간공원 조성사업 공동주택 사업부지 내 송전탑 3기만 철거할 계획이었지만, 주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한전과 협의를 거쳐 송전탑 7기를 추가 철거하고 지중화하기로 했다.

중외공원은 사유지가 79%로, 현재 토지보상을 진행 중이다. 토지보상이 마무리되면 천주교 묘원과 훼손지에 나무를 심어 생태숲으로 복원하고, 다양한 여가 및 체육 활동 등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된다.

/박진표 기자 lucky@

매력있는 전남 섬 정보 검색 쉬워진다

'About 전남의 섬' 반응형 웹 개편

전남도가 섬 현황 정보 전달의 신뢰성을 높이고 사용자의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About 전남의 섬' 누리집을 전남 섬 현황 정보 포털로 전면 개편해 서비스를 시작했다.

새로운 누리집은 PC, 스마트폰, 태블릿 등 다양한 기기에서 최적화되는 반응형 웹으로 제작해 다양한 환경에서 접속한 사용자가 편리하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전남만의 매력 있는 섬과 해양자원의 우수성을 전달하기 위해 기존 텍스트 중심에서 벗어나 직관적으로 한눈에 보도록 시각화했다. 또 물음표가 있는 전남 섬

정보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지도와 검색 서비스를 도입했다. 검색은 시·군, 섬 유형 등의 카테고리 분류를 통해 쉽게 검색하도록 했다.

전남도는 21일까지 약 2주간 누리집 개편 기념 SNS 이벤트도 진행한다. 전남의 유인도 개수를 맞추는 이벤트로 'About 전남의 섬' 홈페이지에 접속해 정답을 확인하고 해당 인스타그램 혹은 페이스북 게시물에 댓글로 남기면 된다.

댓글을 남긴 응모자 중 총 52명을 추첨해 에어팟 프로와 커피쿠폰을 증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About 전남의 섬' 홈페이지와 공식 인스타그램 및 페이스북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이 가을의 '화룡점정' 내장의 단풍향기

손꼽히는 단풍명소 내장산 단풍 즐기는 법







아름답고 아기자기한 조경으로 가족, 연인들이 함께하기 좋은~ '내장산 단풍생태공원'

290년 세월 고운 빛을 한결같이 품어내는 내장산 단풍나무를 만나보세요~ '천연기념물 제563호(내장산 단풍나무)'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일상에 위로와 즐거움을 선사하는~ '108구루 단풍나무 터널길'

맑은 호수에 붉게 물든 단풍이 비치는 한폭의 동양화~ '내장산 우화정'

단풍의 절경을 담아내는 호수와 힐링하기 좋은 산책길~ '내정호와 문화광장'



정읍시 JEONGEUP-SI